

임실군 1억원 고향사랑기부, 도내 최고액 '화제'

“오수의견의 세계화 등 고향사랑 마음 꼭 전하고자”

서명한 전 오수개 복원연구 추진위원회

“처음 오수의견 복원사업을 시작할 때 십시일반 출향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꼭 오수의견 발전사업에 기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뜻을 모아 적금을 들었습니다. 오수의견의 세계화, 오수 반려문화도시 등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초대 오수개 복원연구 추진위원회 서명한 위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1억원이라는 거액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건네며 전한 말이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독수 군수와 만나 “주인을 구하고 목숨을 바친 오수의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오수의견 프로젝트와 임실군 반려산업 발전에 써달라”며 1억원이라는 초고액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했다.

그의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도내에서 기부된 금액연도, 단일회차로는 처음이자, 역대 최고액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고액 기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단순한 기부 참여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향토 인사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제 오수의견의 역사와 문화는 임실군의 큰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오수의견 천연기념물 등재 추진과 오수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보존사업 등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 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오수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오수개 천연기



초대 오수개 복원연구 추진위원회의 서명한 위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1억원이라는 거액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임실군에 전달했다.

념물 등재 추진’ 등 오수개의 문화자원 보존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그는 오수개의 역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대표적 인 향토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족과 함께 기탁한 그의 남다른 행보는 지역을 향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전 위원장은 “이번 기부가 지역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돼 더 많은 분들이 임실을 응원하고, 오수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보존

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은 서 전 위원장의 소중한 뜻을 받아 오수개와 오수 반려문화 발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수개 천연기념물 지정시 기념비 건립사업과 의견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추진사업, 오수 반려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및 자료 발간사업 등이다.

한독수 군수는 “오수의견 설화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한 설화로, 이를 테마로 한 반려산업은 관광산업과 결합해 우리 임실군의 세계화는 물론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기부자님의 소중한 뜻을 잘 이어받아 오수의견의 역사와 문화가 산업이 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은 장학문화재단, 고산고서 JB인문학 강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고산고등학교에서 2026 JB인문학 강좌를 열고 학생들에게 좌절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전했다.

지난 10일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에 따르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에는 한쪽 팔을 잃은 큰 사고를 극복하고 다양한 도전을 이어오며 희망을 전하고 있는 김나운 강사가 초청됐다.

김 강사는 “좌절이 왔을 때 장황해야 할 마인드를 주제로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실패는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와 어려움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솔하게 전달했다.

한편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JB인문학 강좌는 도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현재까지 113회에 걸쳐 총 3만3,01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의회, 올 하반기 첫 청소년 의회 교실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가 지난 10일, 덕곡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첫 번째 청소년 의회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참여 학생들은 △분회의 모의체결(찬반토론 및 표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의회 시설 견학 등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지역 사회를 위해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본회의 체제 시간에서는 일일 시의원이 된 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돋보였고, 학생들은 스스로 발굴하고 준비한 ‘모든 학생들의 의사를 소파로 바꿈시다’라는 제치 있는 안건을 직접 상정하고 찬반 표결을 진행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명숙 의장은 “이번 청소년 의회 교실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의회의 올해 상반기에 총 6회의 의회 교실을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력예방 캠페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제6회 남원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청소년폭력예방 홍보대사단과 청소년폭력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폭력 예방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올바른 대처법을 다룬 폭력 예방 퀴즈를 풀며 다소 무거운 주제에 친근하게 다가갔으며, 퀴즈를 통해 느낀 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나만의 한 줄 슬로건’을 직접 작성해 공모전에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며, 관련 문의는 센터(063-633-1977)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허강무 교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수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연계 학술 생태계 혁신 위한 지식학연 협력 모델 제안 공로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학술 생태계 혁신 및 지식학연 협력 모델을 제안한 공로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대는 10일 허 교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의 특성을 연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학술·연구 생태계 기반 조성 및 기관 경영혁신에 앞장서 재단의 발전과 위상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월 14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허 교수가 발표한 특강 발제문 ‘이재명 정부 5공 3특 시대 대학의 역할과 과제’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교수는 당시 발제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대학 중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을 도시 공간과 결합하는 ‘대학도시 10개 만

들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허 교수는 대학 주변 권역을 청년 창업과 정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등 정주 인프라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중심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추진 정책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 사업,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산·청년 예산 등 다양한 정부부처 재원을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도시’ 공간 권역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허강무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지방대학은 이제 단순한 교육·연구 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생존과 국가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지방 소멸의 최후 방어벽’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학도시 모델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대가 5공 3특 초광역권 시대의 중심축이자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지식학연 협력 연구대학’의 표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빙상경기장, 20일 지하 링크 재개장

전주실내빙상경기장이 넉 달간의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지하 링크를 재개장한다.



지난 1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전주빙상경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는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지하 링크 운영을 재개한다.

지상과 지하 링크 모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쾌적한 이용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 냉각관 교체와 제빙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지하 방범 재시공과 출입구 창호 보수 교체 등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지회, 장학금 기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지회장 이준홍)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부안군 근능인재육성 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제3회 부안비밀축제 기간 동안 운영한 먹거리 부스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회는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눔과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다.

법무부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일 전주교도교정서목 임정동 신부로부터 후서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아이스크림 1,500개(180만 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수용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전주교도교정서목회는 매년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수용자들에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복지부장관 표창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열린 202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 기관으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 피스엔파크 컨벤션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4000 갱년기 건강교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과정은 한의약 건강관리와 신체활동을 비롯해 원예·방향 요법(아로마) 같은 대체로운 체함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건강 행태 개선과 갱년기 증상 완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정읍=김대환 기자